



35도 안팎 짙은 더위가 2주가 가까이 이어지고 있는 9일 오후 전남 나주 금천면 한배농가에서 농가주인 이일수(68)씨가 배생육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뉴스시스

폭염에 속타는 나주 배 농가... “내 자식 350그루 다 탐니다”

“뽕뽕한 수가 없습니다. 기도하는 것 뿐이지요.”

35도 안팎 짙은 더위가 2주 가까이 이어지고 있는 지난 9일 오후 전남 나주 금천면 한 배 농가에서.

농가 주인 이일수(68)씨는 불볕 더위가 한창인 오후 3시 무렵인데도 배나무 주변 스프링클러 작동 여부를 확인하느라 분주했다.

뜨거운 피아뽕은 막을 수 없어도, 수분이라도 배나무에 잘 공급해야 일소(햇볕 데임) 피해를 막을 수 있겠다는 생각에서다. 이씨는 방충·방풍용 봉투가 씌워진 배를 일일이 살펴보고도 했다.

출하까지는 두 세 달 남았지만 이씨의 얼굴엔 근심만 가득했다. 지난해 농가 전역에 들이닥친 일소 피해의 악몽이 채 가시지도 않은 탓이다.

일소 피해는 강한 햇볕에 따른 온도 변화와 수분 부족 등으로 과수가 거무스름하게 변하거나 타는 증상을 뜻한다.

때이른 폭염에 햇볕데임 피해 악몽 떠올라
가뭄 걱정도 태산... “체계적 보험산출 필요”

이씨는 1만여㎡, 총 3천평 규모 과수원 내 배나무 350그루를 재배하고 있는데 지난해 이 중 3분의 1가량이 일소 피해를 입었다.

예년보다 폭염이 더욱 빨리 찾아온 올해는 더욱 심각할 것 같다고 이씨는 전했다. 앞선 데 닳긴 격으로 잠마마져 이달 1일로 끝났기 때문에 가뭄도 큰 일이라고 우려했다.

이씨가 할 수 있는 일이라고는 배나무마다 들성들성 놓여있는 스프링클러 작동

여부를 살피고 설비를 최대한 동원해 열을 식히는 것 뿐이다.

이씨는 “가뭄은 돈 들여서라도 물을 많이 사용하면 해결이 된다. 반면 일소 피해는 뚜렷한 대책이 없다. 수천평에 달하는 과수원에 쪼는 햇볕을 막을 방법이 전무하다. 하늘에서 하는 일을 어찌 막겠냐”고 한숨을 내쉬었다.

이어 “한창 배가 성장해야 할 때 이렇게 뜨거운 날씨가 계속 이어지면 분명 큰 문제가 발생할 것이다”고 하소연했다.

일소 피해에 대한 보험 산정 기준이 농가가 이해하기 애매모호해 개선이 필요하다고도 했다.

이씨는 “지난해에는 3000~4000만원 상당 일소 피해가 발생했지만 정작 받은 보험금은 500만원이 전부였다. 비료 값도 안 된다. 농가가 출하조차 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 배들도 보험사에서 가공용 판매 등 이유로 보험금 산정에서 제외해 버린다”고 말했다.

이어 “농가를 위한 보험인지, 보험회사를 위한 보험인지 모르겠다. 더욱 명확하고 체계적인 산정 기준이 정립되고 일소 피해를 조금이나마 줄일 수 있는 대책이 마련되길 바란다”고 토로했다.

광주·전남에는 지난달 27일부터 14일째 폭염특보가 내려져 있다. 10일 오전 현재 광주와 전남 21개 시군에는 폭염경보가 내려져 있다. 진도군 역시 폭염주의보가 발효 중이다.

나주/이명열 기자

지면안내

- ▶ 김 총리 “다스릴 정치 아닌 초코파이情으로 행정일” 3면
- ▶ “꿀벌 집단 실종 회복기에 기약없는 더위”... 양봉농가, 울상 9면

광주 최대 혼잡지역 복합쇼핑몰 가시화 교통대책은 ‘제자리 걸음’

교통정책 1위 광천사거리 주변 쇼핑몰 2028년 영업
교통 대책 핵심 지하철 ‘광천상무선’ 2032년께 가능
간선급행버스 2027년 도입... 차량 구입 예산 관건

광주의 대표 교통대란 지역인 광천사거리 주변에 복합쇼핑몰·아파트 등 대형 개발이 가시화 되고 있지만 혼잡을 분산시킬 도시철도 광천상무선 등은 제자리걸음이며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복합쇼핑몰 완공 이후 지하철 공사가 진행될 것으로 예상돼 대책이 시급히 마련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10일 광주시에 따르면 현재 북구 임동 옛 전방·일신방직 부지에는 복합쇼핑몰 ‘더현대 광주’가 2027년 말 완공·2028년 영업을 목표로 공사 착공을 앞두고 있다. 신세계백화점과 광천터미널 부지 확장을 통한 ‘더 그레이트 광주’ 복합 개발도 2026년 하반기 착공을 목표로 사전 협의가 진행되고 있다.

‘더현대 광주’와 ‘더 그레이트 광주’ 복합쇼핑몰은 직선거리로 700~800m다.

광천사거리를 중심으로 개발이 추진되고 현재의 왕복 6~10차선 도로 상황에서 2028년께 대형쇼핑몰이 동시에 개장한 뒤 광주이차점피어스필드에서 프루야구까지 열리면 교통지옥이 예상된다.

지난해 기준 광천사거리 평균제어 지체값(교차로 통과 평균값)은 149.5초로 광주지역 교차로 중 가장 높았다. 하루 8만대 이상 통과하고 가장 많은 시간에는 9292대, 혼잡 지속시간은 하루 8시간으로 분석됐다.

광주시는 광천사거리 주변 혼잡을 분산하기 위해 가칭 도시철도 광천상무선과 간선급행버스(BRT), 교량 증설, 도로 신설, 기존 도로 차선 확대, 급행버스 등을 계획하고 있다.

하지만 광천사거리 교통 대책의 핵심인 도시철도 광천상무선은 2032년께 완공이 예정돼 있다.

광천상무선은 상무역에서 출발해 광천권역과 신안동을 지나 광주역 후문으로 연결되는 연장 7.78km의 동서

축 횡단 노선이다. 총 사업비는 6925억원으로 국비 60%·시비 40%의 매장 사업이다.

광주시는 복합쇼핑몰 등의 개발사업으로 발생하는 공공기여금을 투입할 계획을 세운 뒤 지난 2월부터 국토부와 협의를 했지만 계약·타협 등으로 멈췄다.

국토부 승인이 떨어지지 예비타당성 조사 1년, 실시설계 1년 등 최소 2년이 더 걸릴 것으로 예상돼 실제 착공은 2027년 상반기다. 대형쇼핑몰이 영업을 시작한 이후 공사가 추진되면 도로 통행을 제한해야 하는 상황이 초래돼 시민 불편이 가중될 수 있다.

광천상무선이 동서로 연결되면 남북으로는 간선급행버스(BRT)가 추진되고 있다. BRT는 광주공고~경신역고~광천사거리~농성역~백운광장~구대동 구간 8.67km 구간을 운행한다.

총 예산은 526억원으로 국·시비 각 50%이다. BRT는 정부가 주도한 계획으로 2027년 상반기 까지 개통할 예정이지만 전용차로 확보, 차량 구입 예산 확보 등의 문제가 남아있다.

광주시 관계자는 “광천4거리 주변에 복합쇼핑몰이 들어서면 하루 교통량이 29만대로 급증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어 대중교통 이용을 활성화하기 위해 광천상무선을 계획하고 정부와 협의하고 있다”며 “승인이 완료되면 교통혼잡을 최소화 할 수 있는 지하철 공법으로 공사를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어 “현재로서는 쇼핑몰 개점 이후 지하철 공사를 진행할 수밖에 없어 기존 2차로의 골목길 도로 폭을 최대 4차로 늘리고 광천1교에서 신안교 구간 1.4km 도로 신설, 급행 버스 도입, 교차로 신호체계 개편, 도심주요생활 지역으로만 연결되는 급행버스 도입 등을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박도일 기자

구례군에 기부하고 세액공제도 받으세요 ♥

구례 고향사랑 기부제

기부금 사용처

- ✓ 사회적 취약계층 지원 및 청소년 육성·보호
- ✓ 지역문화·예술·보건 등 증진
- ✓ 주민복지 증진사업 등

구례고향사랑기부제란?

구례군이 아닌 다른 지역에 주소를 둔 개인이 구례군에 기부하고, 구례군은 이를 모아 주민복지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사용하는 제도

기부한도액

1인당 연간 2,000만원 한도, 법인불가

기부혜택

혜택 1 세액공제
10만원까지는 전액 공제 (10만원 초과분은 16.5% 공제)

혜택 2 답례품 제공
기부금의 30% 이내
- 구례사랑상품권
- 구례특산물(흑돼지, 한우, 천연벌꿀 등)

기부방법

온라인
은행·카드 가능해요

국민

신한

하나

하나

고향사랑e음 바우처

기부부터 답례품 배송까지 원스톱으로! 자동 세액공제까지!

오프라인
전국NH농협 방문 → 기부금 납부 → 답례품 주문하기

고향사랑e음 접속 및 가입

↓

자치단체에 기부하기 클릭
(지역선택 : 전라남도 구례군)

↓

기부금 납부
(계좌이체, 신용카드, 간편결제)

↓

답례품 둘러보기 클릭
(지역선택 : 전라남도 구례군)

↓

답례품 주문하기

문의 구례군 총무과 061-780-2307